선한싸움을 먼저 이기면 삶은 무조건 승리다

(딤전1:18~20)

18.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19.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20. 그 가운데 후메내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선한싸움을 먼저 이기면 삶은 무조건 승리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선한싸움을 먼저 이기면 삶은 무조건 승리다.
두 가지 싸움을 하면서 신앙인은 이 땅을 삽니다.
선한싸움과 삶의 싸움입니다.
삶의 싸움은 직장에서 윗사람에게 좀 더 잘 보이고 싶은 마음, 그래서 승진하고 싶은 그런 마음, 또 아니면 직장 자체를 구하는 것도 싸움입니다, 몇 대 몇의 경쟁을 뚫어야만 직장을 얻을 수 있고 사업을 하는 것도 적자를 면하고 흑자로 돌아서기 위한 싸움입니다.
자식을 기르는 것도 싸움입니다, 어떻게 다른 자식들보다 더 똑똑하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자식으로 키워내느냐?
모든 게 다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 치중하느라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간과되는 게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얘기될 필요가 없지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삶의 싸움 이전에 선한싸움을 싸우고 거기서 이겨야 되는 건데, 선한싸움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삶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전력을 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주님에 대한 신앙조차도 삶의 싸움을 위해 투자해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100g의 납덩어리를 얻기 위해서 100g의 금을 투자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선한싸움만 이기면 삶의 싸움은 저절로 승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한싸움이 무엇이며 어떻게 싸워야 이기고, 그럴 때 삶의 싸움에 무조건 승리가 주어진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내가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앞에서 우리가 다른 교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집착해서 변론을 일으키는 이 사람들을 막으라고 했어요.
다른 교훈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내버려두지 말고 막으라는 얘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네 자신이 선한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 자신 안에서 선한싸움을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디모데도 다른 교훈을 목회현장에 끌어들이는 일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 다른 교훈이 뭐였습니까?
목회자가 목회할 때 오로지 하나의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인들의 마음,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놓치니까 신앙의 모든 은혜를 다 놓치는 거예요, 마음을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데에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이거 한 가지 목적 외에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복음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야 십자가복음을 통해 청결한 마음이 주어지고 믿음이 주어지고 선한 양심이 주어지면서 하나님과 함께 만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교훈을 끌어들이느냐?
목회자 자신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대신에 다른 좋은 것이 마음에 있으니까, 그 다른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교인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교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회자 자신이 선한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다른 교훈으로 들어차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싸우느냐?
예언을 따라 싸우라고 했어요, 예언을 따라.
디모데에게 사도바울이 예언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예언이 뭡니까?

구약성경이 대표적으로 이 예언에 대한 예들을 많이 품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모스 선지자가 뽕나무 키우다가 예언을 받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앗수르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망하게 될 것이다,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예언이라 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잘못된 거라고 그랬지요?

분명히 북왕국 이스라엘이 앞으로 앗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라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예언이 가리키고 있는 포인트는 현재입니다.
현재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선민인 북왕국 이스라엘 선민들의 마음이 여호와하나님으로부터 너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진 간격을 없애지 않고 계속 내버려두고 시간이 흘러가면 미래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혀 원치 않는 상황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경부선과 호남선이 같이 있어서 여수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경부선 열차에 타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표시가 안 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원하는 여수로 가지 못하고 엉뚱한 부산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앉아있다가는 부산에 도착할 겁니다, 라는 미래에 있을 일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잘못 앉아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언이란, 지금 현재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얘기고, 디모데에게 그 말씀을 해줬다는 것은 언제나 네가 다른 교훈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교훈을 끌어들이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너 자신의 마음과 영이신 하나님과의 거리를 늘 측정할 수 있는 너만의 진단방법을 갖고 있으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선한싸움을 하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선한싸움은 뭡니까?
끝없이 하나님과 내 마음 사이의 간격을 제거해나가는 게 선한싸움입니다.
이 싸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을 잘 부흥시키기 위해서 사업장에 나가서 거센 경제적 형편을 무릅쓰고 맞서 싸워 이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한싸움만 하라는 거예요.
사업장에 나가기 전에 그 마음이 하나님과 마음 사이의 간격을 제거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업장은 하나님의 손에 쥐어지게 됩니다.
이게 승리라는 거예요.
꼭 흑자로 돌아서는 게 승리가 아니라 내 사업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쥐어질 것인가?
그러면 내가 선한싸움에서 하나님과 내 마음 사이의 간격을 없애면 하나님 손에 내 사업이 들어가고, 내 자식을 키우는데 내 자식이 어떻게 하나님 손에 들어가는가, 내 자식이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크는 게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 손에 들어가는 게 승리입니다.
내가 자식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동안에 그 영향력 크기만큼 하나님 손에 쥐어지는 것, 왜 영향력 크기 만큼이라고 하는가 하면, 자식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대전제가 있으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한계는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어릴수록 그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하나님 손에 쥐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쥐어드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을 제거하는 선한 싸움에서 내가 이길 때.

자, 그러면 왜 우리 마음과 하나님 사이가 간격이 생기는 걸까요?
왜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과 간격이 없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첫 번째 관심의 대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업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간격이 없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과의 간격이 벌어집니까?
마음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첫 번째 관심으로 잡아당기고, 마음이 다른 것에 의해서 첫 번째로 붙잡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 마음 사이에 간격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제거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기고, 첫 번째 관심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됨으로써 하나님과의 간격이 벌어지는 일이 자꾸 생길까요?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싸움을 해나갈 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얘기에요.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첫 번째 관심으로 끌어당기거나 내 마음이 사로잡히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격이 생겨버린다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 내 마음심장을 이식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꺼내서 어떤 다른 대상에게 주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다른 대상을 첫 번째로 내 마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같은 얘기에요.
그러면 왜 나는 내 마음을 어떤 대상에게 꺼내서 주는 겁니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믿습니까?
내가 그 대상에게 마음을 주면, 그 대상으로부터 내 마음의 빈 곳이 채워져서 만족이 이루어질 수 있고 기쁨과 행복이 주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된다고 걱정하는 이유는 사업이 안 돼서 돈이 안 벌린다는 상황이 분명히 나를 불행하게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돈을 못 벌어도 전혀 내 기쁨과 만족과 행복에 아무 상관이 없다고 믿는다면 돈이 안 벌리는 것이 불행할 이유가 없죠.

성경으로 돌아가서 자주 우리가 인용하는 사건을 기억해봅니다.
골리앗의 현장으로 가봅니다,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왜 무서워 떨고 있습니까?
골리앗을 믿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이 나를 죽일 수 있고 이스라엘 나라를 패망으로 이끌 수도 있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안 믿어버립니다, 안 믿으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 나타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데에 맞서나가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쁘고 행복할 수 있고 내 생명이 보존되는 것은 골리앗의 힘에 의해 좌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내가 돈이 없는데도 돈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돈의 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믿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풍랑을 만났는데, 제자들은 두려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풍랑의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풍랑이 자기들을 죽일 수 있고 불행에 빠뜨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풍랑을 두려워합니다.
마음이 풍랑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풍랑의 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풍랑만 있다면 풍랑의 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풍랑 만난 그 현장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하나님을 먼저 붙잡으십니다, 하나님과의 간격을 제거해버리신 겁니다.

이게 선한싸움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철기문화를 정착시킨 가나안 족속과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모세가 너에게 일러준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라'
왜냐하면 그 당시로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길이 율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간격을 제거하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은 내 싸움이다, 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선한싸움을 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을 제거하려면, 내 마음을 붙들어서 하나님과 내 마음 사이에 끼어드는 것들을 제거해내야 되는데, 그 제거해내는 것이 바로 믿음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고 행복을 줄 수 있고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는 대상이 하나님뿐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이외의 대상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가는 것, 그것이 사업이건 직장문제 자식문제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과 나의 마음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있지 않게 다 제거해나가야 되는데, 이걸 제거해낼 수 있는 방법이 십자가의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고백 말고는 내 마음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드는 것들을 제거해가면서 하나님과 나의 간격을 없앨 수 있는 다른 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께로 가려면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날마다 삶의 현장에 나가면 내 마음을 빼앗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가정에서도 생기고, 자식들이 말썽 피워서 생기고…
근데 그 모든 것들에서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 위한 선한싸움을 십자가를 붙잡고 해나가는 거예요.
이때 선한 양심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선한 양심이 왜 필요한 겁니까?
내가 마음 놓고 사업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마음 사이에 커다란 사업문제라는 게 항상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업 때문에 벌어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이 없어져버려서.

그러므로 양심은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갖는 예언적인 태도가 양심입니다.
예언자들은 선민들에 관해서 예언했는데, 양심은 내가 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져 있는가를 측정해내는 게 양심입니다.
그러니 사업 때문에 걱정하다가도 '어이쿠, 이거 내가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커다란 간격이 벌어지고 있구나!' 하고 깨닫는 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교회건축이 하고 싶어서 죽겠다가도 '아, 내가 이거 예배당 건축이라는 걸 생각함으로써 내 마음과 하나님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벌어져버렸구나!' 라고 알고, 예배당 건축은 하나님 뜻대로 될 것임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 낡은 예배당에서 한다면 끝까지 가는 거다, 어차피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성전에서 모이다가 성전 자체를 아예 빼앗겨버리고 말았어도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 나가는 계기가 마련됐는데, 그까짓 것 없으면 어떠냐? 하고 잊어버리면 하나님 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예배당 건축을 하시든 안 하시든.

예배당 건축을 하는 게 승리가 아니라, 예배당 건축이 하나님의 일로 드려지는 일이 승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한 양심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선한 양심을 버려버립니다.
마음 놓고 세상에서 원하는 걸 구하라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어느 해 연말이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우리나라의 신앙세계의 큰 흐름을 주도하시는 목사님이 마음 놓고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이 이미 영적인 양심을 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 구해야지요, 그리스도 안이란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은 다음에 마음이 십자가 너머로 들어간 다음에 무엇이든 구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지, 아직도 십자가 이편에서 세상에 대해 죽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만 살아있는 상태인데, 거기다 대고 마음 놓고 아무거나 구하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파선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파선이라는 얘기를 비유로 그대로 가져오면 어떤 얘기가 되느냐 하면, 우리 마음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삽니다.
직장에 가든 가정에 있든 시장에 가든지 세상 한 가운데서 살게 돼요.
근데 우리 마음이 배라는 거예요, 파선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사도바울이 배로 보는 겁니다.

배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바다 위에 떠있지만 바닷물을 속에 담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업 현장에 나갔지만 사업을 마음에 담으면 안 되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업 현장에 나가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담는 거예요.
자식과 함께 있지만 마음에 자식을 담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담는 겁니다.
마음에 자식을 담아버리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얼른, 내가 지금 하나님과 마음 사이에 자식이 끼어들게 함으로써 간격이 벌어지게 하고 있구나! 하고 빨리 깨우쳐서 십자가를 붙잡고 '자식에 대해 내 마음이 죽은 자입니다, 내 마음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다 드려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림으로써 선한싸움을 해서 하나님아버지와 나 사이의 간격이 없어져야 될 텐데, 교회에 갔더니 자식이 잘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식을 마음속에 굳건히 붙잡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드디어 믿음에 파선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자꾸 담게 만들어버려서, 아니, 배가 바닷물을 자꾸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파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사도바울을 괴롭힌 사람들이었는지 이단의 교훈을 갖고 교회에 들어온 자들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또 둘 다일 수도 있고, 근데 사탄에 내주었다는 것은 이미 그런 마음 안에는 사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과 내 마음 사이의 간격을 고려하지 않고 세상 것을 아무거나 마음으로 붙잡고 끌어들여서 그것을 이기겠다고 삶의 싸움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 이미 사탄에 사로잡힌 상태에 대해서 사도바울 자신으로서는 더 이상 힘을 낼 수가 없다고 자기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버려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성을 모독하지 않도록.
자꾸 그 사람한테 하나님과 가까워지라고 얘기를 해봐야 돼지 앞에 진주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돈 좋아하고 돈 걱정하고 사업이 잘되게끔 하고 자식이 잘되게끔 하겠다는 마음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과의 간격이 한없이 멀어져 있는데도 그걸 잘못된 걸로 보지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가증스러운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양심이 없는데 뭐, 아무리 얘기해봐야 헛소리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세상 걱정 안 하고 사느냐는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장에 나가서 마음에 사업을 담지 않고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지고 들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절대로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탄에 사로잡힌 겁니다.
왜 못해요? 왜 못해?
풍랑 속에서 잠을 주무시고 그러한 상태가 우리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왜 안 된다는 겁니까?
당장에 안 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되는 겁니다.
사업은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원하는 데에 죽을 때까지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신앙은 반드시 언젠가는 주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주신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과제는 선한싸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내 마음 사이의 간격을 제거할 것이냐?
계속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죄의 습성 때문에 믿음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돈 걱정, 돈을 믿기 때문에, 자식 걱정, 자식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불만스럽습니까?
그 사람의 힘을 믿는 거예요, 골리앗의 힘을 믿는 것처럼.
그럴 때 양심을 되살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붙잡고 있고 다른 것 때문에 걱정하는 이유가 그것을 믿기 때문이구나, 깨닫고 십자가에서 그것들에 대해 죽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간격을 자꾸 없애나가는 선한싸움에만 신경 쓰다보면 삶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져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삶의 현장에서 싸워야 될 일이 많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뒤로 하고 선한싸움에 역점을 두는 삶을 살게 해주시므로 삶의 싸움까지도 하나님의 장중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게 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